

※다음 호는 2011년 11월 1일 발행 예정입니다.

소식지 제 3호

2011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본부장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무국장 사제 나카무라 준



#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센다이시 봉사자 숙박시설 환경정리



이시노마키시 피해자 개인주택에 지원물자 배포



이시노마키시 가설주택에 지원물자 배포



이시노마키시 노인복지시설 환경정비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무로네 성나타나엘 교회에서 "어린이 모임"



봉사자 숙박시설 환경정비

## 봉사자 참가자의 소리

※ ※이번 호는, 학교 여름 방학을 이용해 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봉사자의 소리 특집입니다.

## 일본 대재해 피해지를 방문하고——

윌리엄스 신학관 3年生  
루시아 나미사토 데루에

3월 11일 동일본 대재해의 피해자 때문에, 신학관에서, 교회 실습에 앞서, 그의 모임에서, 또 한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윌리엄스 신학관 여름 실습은 동일본 대재해 봉사기간 선생님, 신학생 12명으로, 매일 이동하면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미야기현 히가시 마쯔시마시의 미야토지마 어협, 시장의 청소에서, 제조작업에서, 어협의 할머니들이 하느님, 예수님, 교회 등 잇달아 질문을 하셔서 뜻밖에 선교의 장이 된 것에 놀랐습니다. 후쿠시마현 소마군 신지마을의 피해지로 행할 때, 지진과 쓰나미로 도로, 선로, 역, 가옥, 차, 배등이 무너지고부서지고 흘러, 평야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서로 돕고, 구하는 것이 되지 않은 사람, 또 반파된 가옥과 배에 방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고, 자연의 무서움과 인간의 무서움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피난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에서 별세자 기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야기현 모토요시군 미나미산리쿠 마을 시즈가와도 쓰나미가 격렬해 마을 전체를 삼킨 상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쳐 올 때, 피난 하는 것을 위해 필사로 방송했던 여성과 병원시설, 마을의 사람들이 떠나려 가는 모습을 구조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음이 괴로웠으며, 문득 옆을 보았을 때 쓰레기 안에서 해바라기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철골과 목재의 부셔진 틈으로 바닷물이 덮고 있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대륜의 꽃을 피우고 있는 해바라기, 화초의 강함, 밝음, 우아함, 자연의 무서움을 동시에 보았다는 느낌입니다. 동일본 대재해의 피해지는 방대하며, 복잡한 곤란한 상태의 피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지의 상태를 알려주고, 그리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상해 떠 올리며도호쿠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신중하다고 듣고 있지만,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방언에 『이차리바쵸데(만나면 형제)』 만나고, 교류하고, 서로 돕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연결된 하나의 몸인

우리들입니다. 『함께하는 당신』을 모토로…그리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상해 떠올리며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작업장 히마와리에서 실습을 마치고—

성공회신학원 2年生  
크리스토파 나가타니 류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성공회신학원의 여름실습을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에서 숙박하고, 미야기현 게센노마시의 지적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 『사회복지법인 센신카이·히마와리(이하, 히마와리)』에서 오전 8시 전부터 아침조회~저녁 때 종례까지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 분들의 작업, 시설 도움 등을 했습니다. 시설 직원, 이용자분들, 소중한 분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또, 진재로 개소 직전의 새 시설을 쓰나미와 화재로 잃었습니다.

히마와리에서는, 단맛이 나는 빵과 쿠키를 제조하고 있었으며, 안정된 거래처였던 대형 어선의 납품도 진재로 중단, 쿠키 판매도 이전보다 힘겨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판매 감소는 이용자의 공임에 영향이 있습니다. 궁핍한 상태를 알은 분들로부터의 주문,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판매지원은 공임을 받는 것 외에, 매일 시설에서 작업이 이용자 분들의 웃음에도 직결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쿠키 작업이 있는 곳에서, 이용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부흥을 위해 무엇인가 가능한가를 강하게 실감했습니다. 바빠도 무엇보다도 기뻐 보였습니다.』라고 말해 준 직원분의 말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진재로 체로 지점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활동의 근원 이었다고 확신합니다.

3주간에 걸친 실습에서는, 직원과 이용자 분들과의 만남 그것이 저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은혜였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시설을 뒤로 하고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도와 만든 단맛이 나는 빵, 쿠키, 케익. 미각으로 맛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 영혼이 『맛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다음날 조회에서 『류씨는 오늘부터 휴일입니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만남으로부터 인내하고 그곳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인내하고, 여러가지 만남과 관계가 키워지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계를 견고하게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들도 지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릿쿄 이케부크로 중고에서는 7 월 20 일~23 일에 생도 8 명(중학생 4 명, 고등학생 4 명)과 인솔교사 2 명 계 10 명으로 참가했습니다.

## 센다이 워크 캠프



릿쿄이케부크로중학교2年生

이마다 유우타

그때, 저는 학교 부  
활동 중 이었습니다.  
3 월 11 일 동일본  
대재해 발생. 뉴스에서

본 도호쿠의 참상. 도쿄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피해자를 위해, 무엇인가 나도 가능한 것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저는 그때 어떤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센다이 워크 캠프는 실제로 피해지에 서서, 그 현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참가자는 중고생 합해서 8 명. 쓰나미 피해는 컸다. 미야기현 와타리군 와타리 마을과 이시노마키시를 방문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모조리 삼켜 버린 바다 근처의 마을, 그때부터 4 개월이 지난 지금도 무너져 내린 가옥과 가재의 방대한 산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확실히 이곳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식기와 장난감등이 흩어져 있는 광경, 그것을 직접 보는 순간, 우리들은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것은, 텔레비전 등에서 본 것 들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상태였다. 대진재의 순간, 여기서 살고 있던 분들의 공포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 현실을 응시해야 하나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긴박하지 않은 기분이 가득했다. 그 뒤, 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자 숙박시설을 방문. 그때 놀란 것은 우리들을 기분 좋게 맞이해 준 피해자 분들의 웃음 이었다. 피해지의 광경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 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반대로 그 웃음으로부터 기운과 웃음을 받은 기분 이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아래에 있어도 웃음으로 힘내고

있는, 그 강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

나는 이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자연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한 광경을 그리고, 어떤 상태 아래 있어도 앞을 향해 힘내는 사람들의 웃음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번 캠프에서 우리들이 도와 준 것은 봉사자 숙박시설 지면의 정비 등 그저 작은 것이었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많이 배웠다. 마스크를 통해 아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실제, 피해지에서 서서, 현상을 보고, 피해자 분들의 소리를 듣는 봉사자분들의 활동을 안다.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것을 깊게 생각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살고 있는 장소는 달라도, 부흥을 향한, 지금 자신이 가능한 것을 생각하자.

힘겨운 상태 아래, 우리들을 위해 이 좋은 기획을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말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코난여학교(중·고)에서는 8/16~19 일에 생도 20 명, 8/29~9/1 일에 생도 25 명이 참가했습니다.

## 봉사활동을 한 감상

코난여학교5年生

수애후지 아야

마음에 쿵하고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떨어졌다.  
360 도 바라보아도  
무것도 없다.

집의 기초에 영긴  
기와와 밥공기의  
쓰레기, 도로  
옆에는 녹슬은 차와  
배가 굴러 있었다.

초등학교 교정의 쓰레기 산에 봉제 인형과 축구공이 아른거렸다. 내가 지금 서있는 곳, 보고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오기 전에 그 정도 생각했다.

봉사에 참석하기 전에는, 도호쿠라는 곳은 어딘지 먼 장소이고, 그곳에서 일어난 것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라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동경으로부터 신간센으로 2 시간 정도로 올 수 있는 곳으로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보도되었던 것 이상의 것이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것은 건물과 토지 뿐만이 아니다. 피해자 자신의 마음도 큰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현지에 와서, 현지분들과 이야기해 보고 처음으로 안 것이다.

우리들이 가설주택에서 나눠 준 지원물자 중에는 무엇을 위해 보냈는가, 도저히 지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었다. 물건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지에서는 우리들이 보낸 지원물자가 피해자 분들의 생활이 걸려 있다.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내는 것 이상, 확실히 사람의 손으로 건네주는 것이다. 태연한 것이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피해지에서는 우리들이 일상 사용하는 물건 전부가 필요합니다. 물건에 둘러싸여진 우리들은 당연히 어느 물건이 없다라는 감각이 알 수 없고 라고 느꼈다.

가설 주택에서 피해자분들의 웃음을 보았을 때, 나의 긴장은 조금 누그러졌다. 우리들은 그 웃음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웃음은 반드시 플라스의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우리들 자신도 더 웃음을 소중히 하고, 이번의 봉사에서의 경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고 싶다.

### 『함께 걷자!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나고야 류조 단기대학 그리스도교 센터  
오노에 아키코

이번에, 나고야 류조 단기대학은, 연초 예정에 없던 『함께걷자! 프로젝트』 활동에 급히 참가하는 기회를 얻어, 현지 스텝 분들과 연락을 하고, 또 예비조사등 준비를 하고 9 월 1 일~4 일까지의 다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 월 상순, 봉사자 모집을 할 때, 하루 반 만에 정원의 2 배 이상의 학생이 응모하였다. 잠재적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응모했다. 결과적으로 학생 18 명, 스텝 5 명의 인솔로

2 조로 나누어 활동 하였다. 한 그룹은, 센다이를 거점으로 미야기현 와타리군 야마모토 마을 후지 유치원 방문(원은 재해로 인해 구민관에서 보육), 미나미산리쿠 마을 시즈가와(필리핀 여성 지원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교류), 한 그룹은 본교의 졸업생과 관계가 있는 미야기현 게센노마시 아이코우 유치원 방문,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에서 어린이 모임 주최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양 그룹의 공통점은 피해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교류였다. 봉사라는 것은, 결국 충분하지 않은 활동이지만, 현지에서 냉엄한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은 조금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 어린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격려를 얻고, 현지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확실한 사명을 가진 보육과 지원으로 『보육은 무엇인가?』라는 원점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참가자의 다수의 학생에게 있어서 이번 경험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본교는 이번 학생들의 경험을 학교 전체에 나누고 싶어, 조금씩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회고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이지만, 지금 현재, 생각나는 감상의 일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9 월 2 일 「가설 후지 유치원에 방문했다. 어린이들은 매우 건강하고 순박한 어린이들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간 집에서는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놀이 가운데에 쓰나미에서 경험한 것과 신체 주변에서 일어난 것들이 밀치고 들어와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쾌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을 때도, 『쓰나미로 떠내려 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는 어린이도 있었다. 재해 입은 후지 유치원을 보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떠내려간 8 명의 어린이와 1 명의 선생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 중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022-265-5221 FAX: 022-748-5321

E-mail: walk@nssk.org URL: http://www.nssk.org/walk/